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

김상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변충규 (경상대학교 강사)**

하환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개인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은 동기부여 및 목표지향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창업을 결정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은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후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이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창업 및 경영관련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참여자들의 창업효능감이 미참여자들의 창업효능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의 시간관에 따라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과거부정수준 및 현재속명수준이 낮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쾌락수준 및 미래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시간관을 짐바르도의 시간관 유형(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따라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창업교육을 경험할수록 현재쾌락과 미래지향 시간관과 같은 창업효능감과 정(+)의 관계에 있는 시간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의의와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시간관, 창업효능감

1. 서론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성과가 달리 난다는 말이다. ‘할 수 있다’ 혹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리학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 부르고, 이를 측정하여 사람들의 동기부여와 성과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창업분야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 이름 짓고, ‘불확실한 창업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Boyd & Vozikis, 1994; Chen et al., 1998; Krueger et al., 2000).

창업효능감에는 성취욕구와 내적통제소재, 위험추구성향 등 개인의 성격특성 변수들과 창업교육과 훈련, 이전의 사업경험 등의 환경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Zhao et al, 2005; McGee et al., 2009; 정대용·채연희, 2016; 양준환 외, 2017).

그 중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높아질 수 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창업효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McGee et al., 2009; 현선훘 외, 2016; 정대용·채연희, 2016; 박재환·최민정, 2016).

한편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창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의사결정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동기부여와 목표지향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개인의 시간관(Time Perspective)도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김상표 외, 2015; 김상표 외, 2016; Przepiorka, 2016). 즉 개인들이 어떠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창업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과정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과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이 창업과정에서 동기부여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에는 시간

이 논문은 2017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교수, tao@gntech.ac.kr

** 공동저자,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강사, cgbyun@gnu.ac.kr

*** 교신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교수, hano@gntech.ac.kr

· 투고일: 2017-11-11 · 수정일: 2017-12-24 · 게재확정일: 2017-12-29

관의 유형 중에서 미래지향 시간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예컨대 Przepiorka(2016)는 성공한 창업자는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최근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예비창업자와 실제창업자들이 사업준비와 경력개발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상표 외, 2015; 김상표 외, 2016; Przepiorka, 2016). 한편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부정 시간관과 현재속명 시간관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현재쾌락 시간관과 미래지향 시간관에 대해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rzepiorka, 201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은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등 창업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이라는 각각의 변수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을 측정하여 두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보고자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성공과 실패사례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해 간접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을 통해 얻는 창업성공에 대한 간접경험은 창업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창업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일자리 또는 특정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77). 특정업무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그 업무를 추구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Bandura, 1997). 이에 따라 창업효능감의 개념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Chen et al., 1998). Chen et al.(1998)은 창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창업자로서 필요한 능력인 마케팅, 혁신, 관리, 위험감수성, 재무적 통제

등 다섯 개의 요인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McGee et al.(2009)는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기회탐색 단계,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계획수립 단계,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자원을 수집하는 정리/배열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재무적 실행 단계 등에서의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척도개발 노력의 덕분에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Boyd & Vozikis, 1994; Chen et al., 1998; Krueger et al., 2000).

창업효능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효능감은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개인의 성격특성, 창업교육, 위험성향, 기업가적 역할모델 등이 창업효능감의 선행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있다(Zhao et al, 2005; McGee et al., 2009; 정대용·채연희, 2016; 양준환 외, 2017). 그리고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불확실한 창업환경에 대한 대처도 높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창업효능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cGee et al., 2009; 현선훈 외, 2016).

Zhao et al.(2005)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이전의 기업경험, 위험성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선훈 외(201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재환·최민정(201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향상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정대용·채연희, 201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특성 및 환경특성 변수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 시간관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할하는 심리적인 시간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Zimbardo & Boyd, 1999).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 중 하나에 대한 선호로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경험들을 저장하고 사건들을 구조화함으로써, 목표설정,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Zimbardo et al., 1997; Zimbardo & Boyd, 1999). Zimbardo & Boyd(1999)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시간관으로 보고, 과거부정(Past-Negative), 과거긍정(Past-Positive), 현재속명(Present-Fatalistic), 현재쾌락(Present-Hedonistic), 미래지향

(Future)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과거부정 시간관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관점이며,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거나 과거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관이 형성된다. 과거긍정 시간관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과거 화려하거나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수명 시간관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관점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다. 현재쾌락 시간관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관점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오락과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미래지향 시간관은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김경년, 2013).

지금까지의 시간관과 관한 연구는 행복, 자아존중감, 우울증, 정서, 성격, 의사결정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Zimbardo & Boyd, 1999; Boyd & Zimbardo, 2005; Drake et al., 2008; Ittersum, 2012; Webster & Ma, 2013; 김범준, 2014; 김외숙·박은정, 2015). 시간관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관을 통해 신체적 활동과 계획수립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 위험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Zimbardo, et al., 1997). 사람에 따라 시간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행위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주요결과들을 살펴보면, 현재쾌락 시간관을 보이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enson et al., 2006).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학생들일 수록 목표지향적이며, 학업과 관련된 동기수준이 높았다(Mello & Worrell, 2006; Zimbardo & Boyd, 2008; Avci, 2013; 김경년, 2013).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개인의 동기 부여 정도도 높고, 목표지향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한편 시간관이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Zimbardo & Boyd(1999)의 시간관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rzepiorka(2010)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간관과 창업 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현재쾌락과 미래지향적일수록 현재수명과 과거부정이 낮을수록 창업 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Przepiorka(2016)는 창업의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실제 창업을 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시간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의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현재수명 수준이, 창업의도가 높은 집단과 실제 창업자 집단에서 미래지향적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상표 외(2015)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창업태도 또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상표 외(2016)는 균형 잡힌 시간관과 창업시도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창업에 대해 더 호의적 태도를 보였으며, 창업시도에 대한 평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간관은 행복, 자아존중감, 우울증, 정서, 성격,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거부정과 현재수명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현재쾌락 및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호의적이고, 실제 창업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창업효능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및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효능감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사람들이 창업효능감이 높을까? Bandura(1977)는 성공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 등 네 가지를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즉 사람들은 과거 성공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많이 관찰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등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위해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창업관련 특강과 세미나, 체험행사 등의 비교과목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성공 혹은 실패경험을 대리학습 함으로써 창업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김미숙·김영국(2012)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도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등 창업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시간관이 창업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간관이 창업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을 측정하여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시간관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시간관(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 시간관)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창업효능감과 시간관(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 시간관)의 관계는 어떠한가?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경영 및 창업관련 강좌를 듣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응답 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최종 수집된 표본은 200명으로,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한 응답을 한 10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표본은 190명이었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Zimbardo & Boyd(1999)가 개발한 시간관검사(ZTPI)의 문항과 윤소정·김정섭(2012)의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를 활용하였다.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총 3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과거부정 시간관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과거에 한 행동을 자주 후회한다”, “고통스러운 과거 일이 자꾸 기억난다”,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과거긍정 시간관은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나의 과거를 되돌아 보는 일은 즐겁다”, “좋은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이 쉽게 떠오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의 과거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 “나의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어린 시절 경험과 비슷한 장면이나 소리, 냄새를 만나면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현재속명시간관은 운명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태도로 “미래를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에 지배받고 있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날 테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소용이 없다”, “세상 일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미래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내가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오늘날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의 단순한 삶이 더 좋다”, “목표, 결과,

실적을 생각하면 일하는 과정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현재쾌락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로 “목표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생의 여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흥미 진진한 삶을 위해서 모험도 감수한다”, “모험은 내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보다 가슴을 따를 때가 더 많다”, “일을 제시간에 마무리 짓는 것보다 그 일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미래지향은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로 “꾸준히 일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 한다”,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유혹도 뿌리칠 수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으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한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친구나 윗사람과 약속한 일을 제시간에 마무리 한다”, “오늘 하루를 최대한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창업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재환·최민정(2016), 정대용·채연희(2016)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많은 준비를 통해 창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대학 또는 사회에서 창업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할 자신이 있다”,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을 하면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등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먼저 성별은 남성 112명(58.9%), 여성 78명(41.1%)이며, 학년은 2학년 63명(33.2%), 3학년 49명(25.8%), 4학년 78명(41.1%)이며, 단과대학은 경영/경제계열 97명(51.1%), 공학계열 93명(48.9%)이며, 창업교육 경험정도는 있음 114명(60%), 없음 76명(40%)이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0)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12	58.9
	여성	78	41.1
학년	2학년	63	33.2
	3학년	49	25.8
	4학년	78	41.1
단과대학	경영/경제계열	97	51.1
	공학계열	93	48.9
창업교육	있음	114	60
	없음	76	40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을 다항목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0.6~0.9이상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Nunnally, 1978).

<표 2>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과거부정	PN1	.628	2.883	9.299	.721
	PN2	.754			
	PN3	.503			
	PN4	.719			
과거긍정	PP1	.490	2.837	9.152	.744
	PP2	.693			
	PP4	.654			
	PP5	.639			
	PP6	.645			
	PH1	.656			
PH3	.493				
PH4	.533				
PH5	.582				
PH6	.670				
PH7	.431				
현재쾌락	PF1	.519	2.748	8.865	.698
	PF2	.711			
	PF3	.619			
	PF4	.614			
	PF5	.599			
	PF6	.452			
미래지향	FO1	.702	2.616	8.438	.740
	FO2	.762			
	FO3	.552			
	FO6	.544			
	FO7	.652			
창업효능감	ES1	.825	4.439	14.321	.915
	ES2	.729			
	ES3	.919			
	ES4	.867			
	ES5	.846			

신뢰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재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적재된 요인이 일관되지 않은 과거긍정 1개 항목, 미래지향 2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에서는 KMO값이 .755로 나타나 변수와 관측치의 수가 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4.2 창업교육 참여여부와 창업효능감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창업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 참여자들의 평균값(M=3.677)이 비참여자의 평균값(M=2.97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창업교육이 창업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창업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값 3을 중심으로 창업효능감을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년, 단과대학 및 창업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창업효능감 고집단에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창업효능감 저집단에서 2학년이 높았으나, 중집단에서는 3학년이 높았다. 단과대학은 창업효능감 중집단에서 공학계열이 높았다. 창업교육은 창업효능감 중집단과 고집단에서 창업교육 참여자들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창업효능감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창업효능감의 차이(5점척도)

배경 변인	집단	저집단 (n=46)	중집단 (n=71)	고집단 (n=73)
성별	남성	2.184	3.226	4.395
	여성	2.133	3.278	4.166
학년	평균	.284	.743	2.080**
	2학년	2.376	3.136	4.295
	3학년	2.360	3.365	4.476
단과대학	4학년	1.966	3.260	4.232
	평균	2.782*	4.088**	1.703
	경영/경제계열	2.285	3.141	4.333
창업교육	공학계열	2.056	3.351	4.303
	참여	1.334	3.267***	.263
	미참여	2.305	3.338	4.437
평균	2.059	3.124	4.010	
	평균	1.291	3.414***	4.678***

* $p < .10$, ** $p < .05$, *** $p < .01$

4.3 창업교육 참여여부와 시간관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시간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부정 시간관에서는 창업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과거긍정, 현재숙명, 현재쾌락, 미래지향 시간관에서는 창업교육 참여자의 평균값이 미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시간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시간관의 차이(5점척도)

배경 변인	시간관	과거 부정	과거 긍정	현재 숙명	현재 쾌락	미래 지향
창업교육	전체	2.734	3.596	2.592	3.578	3.353
	참여	2.706	3.723	2.454	3.682	3.429
	미참여	2.799	3.405	2.798	3.423	3.238
평균	.921	3.136***	3.764***	2.884**	2.289*	

* $p < .10$, ** $p < .05$, *** $p < .0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시간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과거부정 시간관의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지만($F=3.913, p<.05$), 성별, 단과대학, 창업교육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과거긍정 시간관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집단($M=3.723$)이 경험이 없는 집단($M=3.405$)보다 과거를 긍정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3.136, p<.001$). 하지만 성별, 학년, 단과대학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속명 시간관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집단($M=3.429$)이 경험이 없는 집단($M=3.233$)보다 현재속명 시간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764, p<.001$). 그러나 성별, 학년, 단과대학별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쾌락 시간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창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집단($M=3.682$)이 경험이 없는 집단($M=3.423$)에 비해 현재쾌락 시간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884, p<.01$).

미래지향 시간관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4학년($M=3.472$), 3학년($M=3.364$), 2학년($M=3.197$)의 순으로 미래지향 시간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미래지향 시간관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F=3.948, p<.05$).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M=3.429$)이 경험이 없는 집단($M=3.238$)보다 미래지향 시간관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2.289, p<.05$).

<표 5>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시간관의 차이(5점척도)

배경변인	집단	과거 부정	과거 긍정	현재 속명	현재 쾌락	미래 지향
	전체	2.734	3.596	2.592	3.578	3.353
성별	남성	2.725	3.584	2.631	3.644	3.375
	여성	2.769	3.613	2.533	3.485	3.322
	F값	.433	.286	1.035	1.754	.623
학년	2학년	2.710	3.515	2.603	3.468	3.197
	3학년	2.551	3.697	2.524	3.659	3.364
	4학년	2.891	3.598	2.626	3.617	3.472
	F값	3.913 [*]	.939	.393	1.586	3.948 [*]
단과 대학	경영/경제계열	2.708	3.592	2.570	3.560	3.340
	공학계열	2.779	3.604	2.616	3.598	3.367
	F값	.708	.075	.429	.429	.314

* $p<.10$, ** $p<.05$, *** $p<.01$

4.4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측정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수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창업교육 참여집단에서의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을 분석한 결과,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0.10~0.01 유의수준(양쪽) 하에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이 창업효능감($r=-.178\sim.375, p<.10\sim.01$)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창업교육 참여집단의 구성개념간 상관행렬은 <표 6>과 같다.

<표 6> 창업교육 참여집단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1	2	3	4	5	6
1. 과거부정	1					
2. 과거긍정	-.233***	1				
3. 현재속명	.258***	-.221**	1			
4. 현재쾌락	-.335***	.537***	-.194**	1		
5. 미래지향	-.103	.420***	-.257***	.354***	1	
6. 창업효능감	-.157*	.162*	-.178*	.358***	.375***	1
Mean	2.701	3.723	2.454	3.682	3.429	3.677
Std.	.695	.667	.615	.607	.616	.923

* $p<.10$, ** $p<.05$, *** $p<.01$

창업교육 미참여 집단에서의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을 분석한 결과,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0.10~0.01 유의수준(양쪽) 하에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미래지향이 창업효능감($r=-.476\sim.373, p<.001$)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재쾌락은 창업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간 상관행렬은 <표 7>과 같다.

<표 7> 창업교육 미참여 집단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1	2	3	4	5	6
1. 과거부정	1					
2. 과거긍정	-.274**	1				
3. 현재속명	.477***	-.253**	1			
4. 현재쾌락	-.025	.545***	.069	1		
5. 미래지향	-.093	.564***	-.122	.497***	1	
6. 창업효능감	-.345***	.373***	-.476***	.151	.348***	1
Mean	2.799	3.405	2.798	3.423	3.238	2.978
Std.	.674	.696	.618	.607	.525	.851

* $p<.10$, ** $p<.05$, *** $p<.01$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의 구성개념간 상관행렬을 창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창업교육 참여자 집단의 현재쾌락 및 미래지향과 창업효능감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업교육 미참여 자 집단은 과거부정과 과거긍정, 현재속명 시간관에서 창업효능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8> 창업교육 참여집단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시간관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속명	현재쾌락	미래지향
창업교육 참여	-.157*	.162*	-.178*	.358***	.375***
창업교육 미참여	-.345***	.373***	-.476***	.151	.348***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창업교육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하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김미숙·김영국, 2012)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창업교육 여부에 따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가 창업교육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창업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 참여자들이 창업교육 미참여자들보다 창업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이 창업효능감, 즉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효능감은 직접적인 성공경험과 간접적인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등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Bandura, 1977).

따라서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창업자의 성공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기창업자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대리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시간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참가자들이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재에 대한 속명적인 태도가 낮으며, 미래에 대한 쾌락정도가 높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개인의 시간관과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 단과대학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에서는 4학년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낮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기존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자들과 창업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쾌락과 미래지향 시간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참여자들이 미참여자들보다 현재쾌락과 미래지향 시간관의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창업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때에는 창업효능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간관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창업교육 참여 집단에서는 미래지향, 현재쾌락, 과거긍정과 창업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재속명과 과거부정은 창업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창업교육 미참여 집단에서는 미래지향과 과거긍정과 창업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현재속명과 과거부정은 창업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부정과 현재속명수준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은 낮고, 현재쾌락과 미래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교육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창업교육 참여자들의 현재쾌락과 미래지향 시간관과 같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은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

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창업지원을 할 때는 먼저 이들의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을 측정하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쾌락과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창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과 과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짐바르도의 다섯 가지 유형의 시간관으로 측정하였지만,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간관의 관점에서 창업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살펴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연구들은 위험감수성과 진취성, 내적통제소재, 내재적 동기 등의 개인의 심리특성 변수들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인의 심리특성변수들이 시간관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지 못하였다. 향후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와 후행변수(창업태도와 의도 등)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이 균형잡힌 시간관과 높은 창업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등의 능력을 키우는 창업교육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들이 균형잡힌 시간관과 높은 창업효능감을 갖는데 기여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본 추출의 편의를 위해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일반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김경년(2013). 교육포부 형성에서 시간지향성의 영향: 문화자본과 의미 있는 타자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인과관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2), 29-54.
-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15(4), 61-84.
- 김범준(2014). 시간관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49-67.
- 김상표·변충규·하환호(2015). 미래지향 시간관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모호성 인내력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5(4), 47-56.
- 김상표·변충규·하환호(2016). 균형 잡힌 시간관과 창업시도태도의 관계, *한국창업학회지*, 11(4), 110-129.
- 김외숙·박은정(2015). 대학생의 시간전망이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141-161.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조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 양준환·정대용·김준광(2017). 기업가적 역할모델이 한국 대학생의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2(3), 115-136.

- 윤소정·김정섭(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1), 85-110.
- 현선해·서문교·권인수(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39-49.
- Avci, S.(2013). Relations between Self Regulat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 Delay of Gratifi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133(4), 525-537.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oyd, J. N., & Zimbardo, P. G.(2005). Time Perspective, Health and Risk Taking, In A. Strahman & J. Joireman (Eds.), *Understand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Tim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85-107), Mahwah, NJ: Erlbaum.
- Boyd, N., & Vozikis, G.(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hen, C., Greene, P.,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ung, D. Y., & Chae, Y. H.(2016).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1), 85-110.
- Drake, L., Duncan, E., Sutherland, F., Abernethy, C., & Henry, C.(2008). Time Perspective and Correlates of Wellbeing, *Time & Society*, 17(1), 47-61.
- Henson, J. M., Carey, M. P., & Carey, K. B.(2006). Associations among Health Behaviors and Time Perspective in Young Adults: Model Testing with Boot-Strapping Replica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2), 127-137.
- Hyun, S. H., Seo, M. K., & Kwon, I. S.(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39-49.
- Ittersum, K. V.(2012). The Effect of Decision Makers' Time Perspective on Intention-behavior Consistency, *Marketing Letters*, 23(1), 263-277.
- Kim, B. J.(2014). Time Perspective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1), 49-67.
- Kim, K. N.(2013). Effects of Time Perspective on Educational Aspirations: Causal Relationships Based on Instrumental Variables Such as Cultural Capital and Significant Othe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2), 29-54.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5(4), 61-84.
- Kim, O. S., & Park, U. J.(2015). The Effects of Time Perspective on Time Management and Life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4), 141-161.
- Kim, S. B., Byun, C. G., & Ha, H. H.(2015). The Effect of Future Time Perspective on Attitude Toward Business Start-up: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Tolerance of Ambiguity,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5(4), 47-56.
- Kim, S. B., Byun, C. G., & Ha, H. H.(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 Balanced Time Perspectives and Attitude toward Trying Startu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4), 110-129.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ello, Z. R., & Worrell, F. C.(2006). The Relationship of Time Perspective to Age,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cademically Talen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9(3), 271-289.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rzepiorka, A.(2010). *Time Perspective Proactive Personality and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In: The XVth European Conference on Personality, Brno, The Czech Republic, 20-24, July.
- Przepiorka, A.(2016). What Makes Successful Entrepreneurs Different in Temporal and Goal-Commitment Dimensions?, *Time & Society*, 25(1), 40-60.
- Webster, J. D., & Ma, Z.(2013). A Balanced Time Perspective in Adulthood: Well-being and Developmental Effect, *Canadian Journal on Aging*, 32(4), 433-442.
- Yang, J. H., Jung, D. Y., & Kim, C. K.(2017). How Entrepreneurial Role Model Affect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 115-136.
- Yune, S. J., & Kim, J. S.(2012). Validation of Korean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2), 587-606.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 Zimbardo, P. G., & Boyd, J. N.(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 Zimbardo, P. G., & Boyd, J. N.(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Can Change Your Life*, New York: Free Press.
- Zimbardo, P. G., Keough, K. A. & Boyd, J. N.(1997). Present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Risky Driv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6), 1007-102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im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im, Sang Pyo*
Byun, Chyng Gyu**
Ha, Hwan Ho***

Abstract

Personal time perspective is a factor influencing motivation and goal-oriented behavior. The start-up process is a preparatory process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presen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depending on the level of time perspective.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time perspective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90 students in college. To test the hypothesi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individual's time by past-negative, past-positive, present-fatalistic, present-hedonistic, and future-oriented tim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ore experi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higher the present-fatalistic, present-hedonistic, and future-oriented level.

Second, the effect of individual's time perspectiv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as analyzed. The past-negative and present-fatalistic level influenced negativ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e present-hedonistic and future-oriented level influenced positiv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Final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academic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Keywords: Entrepreneurial Education, Time Perspectiv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Venture & Busines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ao@gntech.ac.kr

** Lectur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gbyun@g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Venture & Busines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o@gntech.ac.kr